

■ 주요 뉴스: 미국 2월 방산업 고용 확대 불구,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

-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영업정지, 유럽 등으로 유동성 불안 확산
- 일본은행,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유지하고 성장전망치 하향 조정
- 미국 재무장관, 정부부채 한도 상향 촉구하고 인플레이 우려 강조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 실리콘밸리은행발 유동성 위기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주가 하락[-1.5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하락[-20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중소은행 등 연쇄 위기 우려를 반영
유로 Stoxx600지수는 주요 은행주 주가 급락 등으로 1.4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압력 완화 기대감 등으로 하락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6%, 0.8% 절상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임금 상승률 둔화 등을 반영
독일은 소비자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9.2원, -2.6원) 0.2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3/10일	3/9일	전일대비			3/10일	3/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61.6	3,918.3	-1.45%	국채 금리 10y	미국	3.70%	3.90%	-20bp
	유럽	453.76	459.98	-1.35%		독일	2.51%	2.64%	-13bp
	중국	3,230.1	3,276.1	-1.40%		영국	3.64%	3.80%	-16bp
	일본	28,144	28,623	-1.67%		CDS 5y	한국	43bp	42bp 1bp
	한국	2,394.6	2,419.1	-1.01%	위험 지표	중국	74bp	71bp	3bp
환율	달러지수	104.64	105.31	-0.64%		EMBI+	-	441	-
	유로화	1.0643	1.0581	0.59%		VIX	24.80	22.61	9.69%
	엔화	135.03	136.15	0.82%		WTI유	76.61	75.72	1.18%
	위안화	6.9172	6.9651	0.69%	원자재	구리	402.2	405.5	-0.81%
	원화	1,324.2	1,322.2	-0.15%		금	1,868.3	1,831.0	2.0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2월 비농업 고용 확대 불구,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

- 미국 2월 비농업 일자리는 31.1만개 증가(예상치 22.5만개) 했으나 실업률은 3.6%로 전월(3.4%) 대비 상승.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비 0.2% 상승해 예상치(0.3%)를 하회
- 고용 수치가 예상을 웃돌았으나, 시간당 임금 상승세가 완만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기조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.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도 상존하나,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(Comerica Wealth Management)
- 반면,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경기 안정 신호로 인식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욱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도 충분(IndexIQ). 한편, 금번 고용지표 혼조세는 연준의 3월 금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(CIBC)
-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계획이 예정대로 작동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발언. 또한 공화당의 정부지출 삭감 요구에 반대 의견을 표명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(SVB) 영업정지, 유럽 등으로 유동성 불안 확산

-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SVB은행을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를 파산 관리자로 임명. FDIC는 3/13일부터 고객들이 예금보험 한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
- 미국 백악관은 은행 시스템이 과거와 달리 공고한 상황이라며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를 표명. Morgan Stanley 등은 SVB 사태가 개별 은행의 자금운용 문제일 뿐, 해당 유동성 위기가 은행권 전체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
- 반면, 앞서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 은행 실버게이트의 뱅크런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중소형은행을 중심으로 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상존
- 이에 미국, 유럽 등 은행주 주가가 급락하면서 Credit Suisse 주가는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UBS 등도 최근 수개월래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을 기록. 또한 비트코인 가격도 2만달러를 하회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충격이 확산

■ 일본은행,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유지하고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

- 일본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금리를 -0.1%로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0% 수준으로 유지. 구로다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설명

■ 미국 재무장관, 정부부채 한도 상향 촉구하고 인플레이 우려 강조

- 옐런 장관은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경제 및 금융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.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

■ 중국, 시진핑 주석 3연임을 확정하고 국가부주석,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선출

-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0일 시진핑의 국가주석 3기 집권과 함께 한정 국가부주석,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취임을 만장일치로 표결. 전인대는 앞으로 12일까지 국무원 총리, 인민은행 총재 등 주요 기관장을 선출할 예정

■ 인도-호주 정상, 경제 및 군사 협력 강화 논의

- 인도 모디 총리는 뉴델리에서 호주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, 에너지, 기후변화, 광물 공급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뒤 업무협약(MOU)을 체결.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 협력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힘

■ 영국, 프랑스와 불법이주 방지 대책에 합의하고 5.4억유로 지원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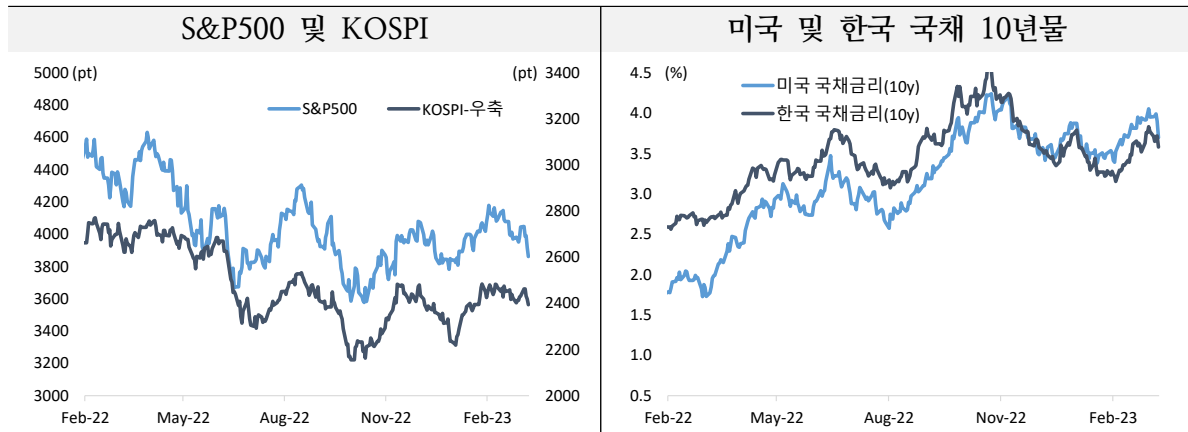
- 영국 수석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영불 해협을 통해 영국으로 건너오는 불법 이주 근절을 방지하도록 합의. 영국은 프랑스가 불법 이주민 구금 장소 등을 마련하는데 향후 3년간 5.41억유로를 지원할 방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3/10 현지시각 기준)

- 영국 1월 산업생산(전월대비): -0.3%, 12월(0.3%), 예상치(0.0%)
- 독일 1월 소비자물가(전월대비): 0.8%, 12월(0.8%), 예상치(0.8%)
- 캐나다 2월 실업률: 5.0%, 1월(5.0%), 예상치(5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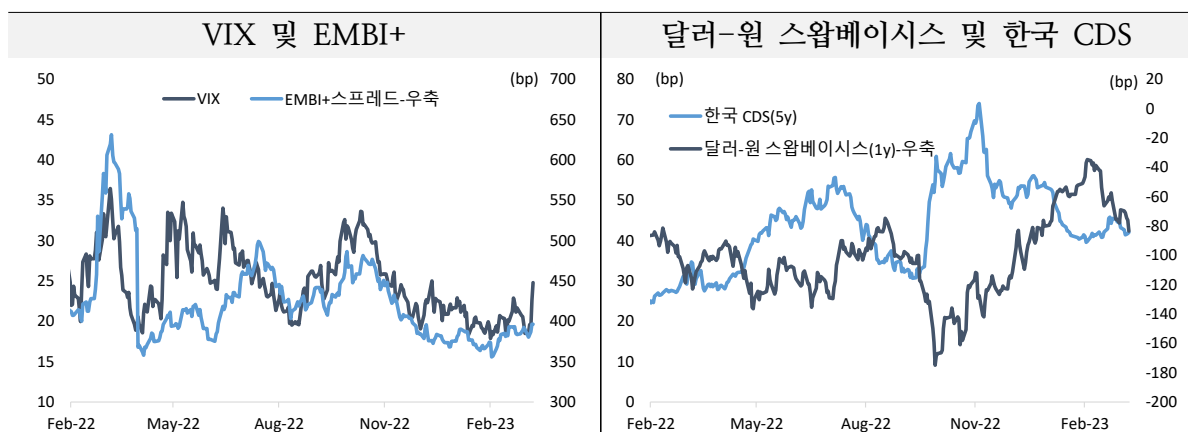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31, E-mail jgbaek@kcif.or.kr